반려동물 사랑, 금융계서 통했다

광주은행 '멍이냥이카드' 가입 5000좌 돌파 인기

8일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멍이냥이카드'에 가입한 배우 한주영(오른쪽)씨와 은행 직원이 이 상품 가입 5000좌 돌파를 축하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사료·간식비·치료비 등 지출 땐 구매액 10% 돌려줘
반려동물 사진 카드 앞면에 싣는 '사진 카드' 서비스
애견가 송종욱 행장 고안하고 카드 1호 가입까지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집에서 8살과 3살 포메라니안 '슈'와 '메오' 아빠로 통한다.

소문난 애견가인 송 행장은 반려동물 가정에는 매달 들어가는 사료와 진료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점에 착안해 특화 신용카드를 고안해냈다.

그 결과 올해 5월 출시한 광주은행 '멍이냥이카드'는 출시 100여 일 만인 이달 초 가입 5000좌를 넘겼다. 송 행장은 멍이냥이카드 1호 가입자이다.

멍이냥이카드는 '펫팸(Pet-fam)족'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뒤 출시 3주 만에 1000좌를 돌파하는 등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비, 질병 예방·치료비, 미용비를 지출하면 구매 금액의 10% 상당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점에 있다.

광주은행이 지난 8월31일까지 2개월여 동안 '멍이냥이카드' 사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이용액 가운데 반려동물 관련 업종 이용액이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사 일반 신용카드 이용액 가운데 반려동물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0.2%)에 비해서는 30배 넘는 수치다.

반려동물 가구를 겨냥한 금융상품은 단단한 마니아 층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고 있다.

광주은행은 카드사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을 카드 앞면에 싣는 '사진카드 발급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멍이냥이카드 가입자들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반려동물 사진이 실린 카드와 함께 찍은 인증사진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반려동물 특화 혜택 외에도 대형마트 3사와 G마켓·옥션 등 온라인쇼핑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생활업종에서도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송 행장은 "반려동물 업종 지출은 매달, 매주 생겨도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금융혜택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특화카드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통해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고객에 친근한 광주·전남 대표 카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반려동물 관련 수요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진화하는 모양새다.

광주지역 4개 이마트가 지난 8월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반려동물 상품 매출을 분석해보니 1년 전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료·간식 등 애완용 식품 매출이 13.1% 올랐고, 패드·샴푸 등 비식품은 12.4%, 공·스틱·낚시대 등 장난감은 20.9% 증가했다.

이마트 측은 거리두기 강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가정에서 반려동물 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맞춤형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이마트에서 면역력 향상과 소화를 돕는 기능성 사료는 일반 사료에 비해 2~3배 정도 비싸지만 매출은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지난 7월부터 매달 1~10일을 '몰리스위크'로 지정, 행사 기간 동안 반려동물 사료 440개 품목을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있다. 또 새로운 회원제 '댕댕이클럽'을 선보이며 연말까지 할인권을 증정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01.91 (+17.69)	↓ 금리 (국고채 3년)	0.949 (-0.024)
↓ 코스닥	878.29 (-0.59)	↓ 환율 (USD)	1186.40 (-1.90)

8월 광주·전남 주식거래대금 1조1208억 ↑

지난 달 지역 주식투자자들은 우량주 위주 거래에 집중하면서 거래대금이 전달에 비해 1조1208억원 증가했다.

주식시장 호황이 지속되면서 지역 상장기업 시가총액은 1조3623억원 올랐다.

8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8월 광주·전남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지역 주식거래량은 전달에 비해 170만주(-0.1%) 감소한 16만3523만주, 거래대금은 1조1208억원(6.5%) 증가한 18조3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식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거래량(4.4%)과 거래대금(11.8%) 모두 전달보다 증가했다.

지역 상장사 시총은 1조원 넘게(7.3%) 증가했다.

지난 8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코스피 상장사 시총은 1조3385억원(8.2%) 증가한 17조6612억원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239억원(1%) 오른 2조4731억원으로 비교적 미미한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코스피의 경우 한국전력 시총이 8987억원(7.3%), 금호타이어는 2183억원(26.3%) 증가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며 "특히 거래정지에서 해제된 세화아이엠씨는 무려 514.9%(3310억원)에 달하는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상의, '2020 광주형 일자리 인증' 참여기업 모집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5일까지 광주시와 공동으로 '2020년 광주형 일자리 인증'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중 2개 의제 이상(노사책임경영 필수)을 실행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한 기업이 대상이다. 평가를 거쳐 인증기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인증기업은 종업원 수에 따라 2000만~8000만원의 인증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이와 별도로 15종의 금융, 세제, 행정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호남지방통계청, 18일까지 '2020년 가족실태조사'

호남지방통계청은 표본가구 및 가구에 속한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020년 가족실태조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족실태조사는 1인 가구, 비혼동거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실태를 파악해 향후 가족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것이다.

조사 내용은 가족 구성 현황,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형성과 변화, 가족생활과 노후 준비, 가족 돌봄, 1인 가구 실태, 정책 수요 등이다.

전국 846조사구에 1만998 표본 가구이며 호남통계청 관할은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151조사구에 1963가구가 대상이다. 호남지역 조사에는 98명이 투입된다.

면접 조사 외 비대면(인터넷) 조사(7~11일)와 자기기입식 조사도 병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긴 장마·잇따른 태풍에 … 채소값 30~80% 폭등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9개 채소 품목 가격이 30%에서 높게는 80% 가량 가격이 올랐다.

농정 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향후 2주 동안 주요 채소·과일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7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거래된 주요 농산물 소매가격을 조사한 소식지 '얼마요 2015호'를 8일 발행했다.

조사 결과 배추, 무, 상추, 오이, 애호박, 건고추, 깐마늘, 양파, 대파 등 9개 주요 채소가격은 1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

1년 전 7000원 하던 배추 1포기 가격은 1만원으로 43% 뛰었다. 2주 전에 비해서는 1000원(11%) 오른 가격이다.

무 1개 가격은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2%(1800원) 급등했다. 오이 10개 가격은 43% 오른 1만원, 애호박 1개는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 가량 올랐다.

건고추 100g은 31% 오른 1만7000원에 판매됐고, 깐마늘 1kg은 33% 오른 8000원에 거래됐다. 양파(1kg·2000원)와 대파(1kg·3500원)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54%, 52% 상승했다.

단 장마가 끝나면서 상추(100g) 가격은 2주 전보다 60% 하락한 1000원으로 조사됐고, 애호박 가격도 2주 전보다는 1000원(-33%) 내렸다.

사과 10개 가격은 2만5000원으로,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1년 전보다 가격이 25% 올랐다. 쇠고기(한우등심 1등급)와 삼겹살 가격은 외식수요가 줄면서 보합세 또는 소폭 하락을 나타냈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10% 안팎 높았다.

aT 관계자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배추, 무 등 채소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는 태풍과 우천으로 인한 일조량 부족, 생육 부진에 따른 출하물량 감소로 공급불안정이 예상돼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제주항공, 30일·10월4일 광주~부산 임시편 운항

제주항공이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30일과 10월4일 총 4회(왕복 2회)에 걸쳐 광주~부산 임시편을 운항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항공의 광주~부산 노선 운항은 지난 2001년 해당 노선의 운항이 중단된 이후 약 20년 만으로,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임시편을 마련했다고 제주항공은 설명했다.

비행시간은 50분으로, 광주공항에서 오전 11시와 오후 4시 40분(10월4일 오후 4시 25분)에 각각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에 오전 11시 50분과 오후 5시 30분(10월4일 오후 5시 15분)에 도착한다. 부산에서는 낮 12시 20분과 오후 7시 5분에 각각 출발해 오후 1시 10분과 오후 7시 55분에 광주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항공권 예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jejuair.net)와 모바일웹 및 앱에서만 가능하다. 운임은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 편도운임을 기준으로 9만원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